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성탄 제목 :구유에 오신 예수님 성경: 마태복음 2장1-12절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앞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2:1-12)

예수님께서 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동방은 아마도 지금의 이란쯤으로 추측이 되지만, 그보다 더 먼 나

라 일수도 있다.

이들은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발견하였다. 아마도 혜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깜짝 놀랐고, 해석하기를 큰 왕이 태어났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사스러운 일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큰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일이 진실인가 하여 탄생한 왕에게 가서 경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세상에 의미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자들이다.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일신의 쾌락이나 명예에 치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의미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고귀한 일이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통치적 존재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관심이 크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에 관심해야 한다.

물론 자기 일에 더 깊이 몰두해야 한다. 그러나 더 몰두하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일에는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동방박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왕이 태어나는 것까지 관심있게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 왜냐면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런 태도들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사람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 가까이는 부모님, 선생님, 멀리는 대통령이나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존경해야 할 대상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때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도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게 된다. 원망이 나쁜 가장 큰 이유는 원망하는 당사자가 원망하는 버릇이 생긴다는 점이다. 웬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지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쉽게 자기비판에서 벗어나 버린다. 죄인이 사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저 잘못했다고 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원망은 이런 자기성찰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자신에게 쏟아야 하는 열정을 다른 사람 원망하는데 소비하고 만다. 결국 손해는 자기가 본다. 열정을 쏟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 원망이다. 소비적 열정이 되어버릴 뿐 아니라, 영똥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마귀편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의 유익도 사라진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능하고 이미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미5:2) 멀고 먼 동방에서 율법에도 능하지 못한 자들도 알아채고 먼 길을 왔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였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져버린 자들이다.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만 한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다.

자기의 권력과 재산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얼마나 크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다른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무시한다.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이 멀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그들의 권력은 영원하였을 것이다.

물론 한번 차지한 지위나 재물은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돈을 얻기는 힘드나 쓰기는 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땅한 사명까지 망각하면 곤란하다.

비록 동방 박사들에게 주도권은 빼앗겼지만, 겸손히 함께 가서 경배하였더라면 오늘까지 당시의 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였다고 하셨다. 즉, 얼마든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율법학자들이 율법주의에 삼키움을 당하고 오히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홀대하는 과오를 범하였으니 부끄러움이 극에 달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서 동방의 박사들이라도 가서 경배하도록 하셨을까?

헤롯왕은 더 가관이다. 그는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다. 이단들은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곡소리가 났으니, 예수님은 탄생부터 실패했다고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헤롯왕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는 율법학자들로부터 분명하게 메시야가 태어나시는 증거라고 들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돈으로 매수한 왕위에 더 집중하였다. 그리고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였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이 헤롯과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장 악한 자들로 인정하신다. 그들에게는 평안도 없으며, 명예도 없으며, 또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순식간에 심판을 당하며, 아무도 기억해 주려는 자도 없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다.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은 투덜거리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실 수 있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이유는 간단하다. 한 나라의 왕은 궁궐에서나 다스리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 모든 사람과 대화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시고 통치하신다.

누구든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헤롯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고집하며 남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마귀편에 서게 된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마귀편 일 뿐이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비록 잘못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정치    제목: 힘내야 하는 청년들    말씀: 로마서 13장 1-7절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롬13:1-7)

대한민국 정치 개요

왜 선거에 20-30대가 패배하였는가?

왜 50-60대는 보수적으로 돌아섰는가?

